간편한 소식 타임즈

「간편한 소식 타임즈」는 4월 한 달간 일간지에 나온 사회 이슈를 편하고 보기 쉽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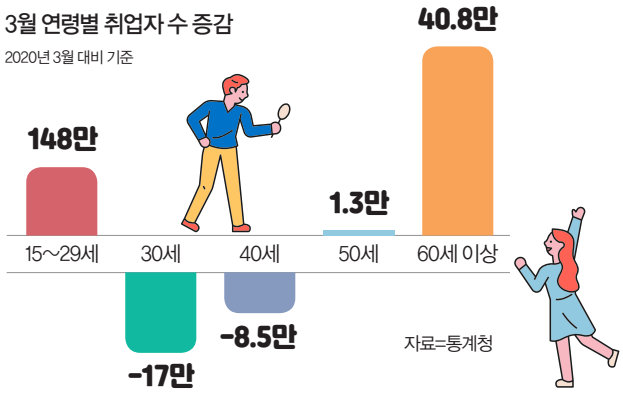
#지난해 산재 사망 40%가 60세 이상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4월 14일 확정 발표한 '2020년 산재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2019년보다 27명 증가한 882명이었다. 다른 연령대 사망자는 모두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은 1년 전(285명)보다 62명 늘어난 347명이었다. 특히 60세 이상 사망자 중 절반 이상(55.3%)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만 취업자가 늘었고 건설업에서 3만6000명가량 증가했다"며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고령화, 특히 사망 사고가 잦은 건설업에서 60세 이상의 취업이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취업자 13개월 만에 증가... 제조업 고용은 7년 만에 최저

3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 명 이상 늘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3개월 지속됐던 일자리 감소 행진이 일단 마무리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 시장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와 30·40대 일자리는 여전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돈 벌면, 최고 7년 징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4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불법 땅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정부안에 없던 '공직자 등의 부동산 보유 및 매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표 후 1년 뒤 시행돼 LH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얀센도 혈전 비상, 미 FDA "접종 중단"

미국 보건당국이 얀센이 만든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 얀센 백신을 접종한 6명에게서 희귀한 혈전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과 혈전 부작용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얀센 백신의 혈전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백신 수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상화폐 광풍' 단속 나선 정부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고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사기,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4월 19일 국무조정실은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전했다.

#샐러리맨 파산 49%, 처음으로 자영업자 추월

개인파산은 통상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장인도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가 크게 줄어 빚을 갚기 어렵게 되면서 파산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른바 '샐러리맨 파산'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부터 관련 통계를 내고 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샐러리맨 파산이 사업자 파산을 넘어섰다.